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 효능감의 매개모형 검증*

유 성 경[†] 홍 세 희 이 아 라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효능감이 진로장벽과 진로포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은 영재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거나 전교 석차 10등 이내, 혹은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다니는 중, 고등학생 890명 이었다. 학업 효능감의 매개 효과가 성(性)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학업 효능감 매개 모형을 남, 녀 집단별로 각각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업 우수 남학생의 경우 학업 효능감의 매개 모형이 지지되지 않았고,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직, 간접적인 영향이 모두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업 우수 여학생의 경우는 학업 효능감의 완전매개 효과가 지지되어 진로장벽이 학업 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학업 효능감은 다시 진로포부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업 우수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진로장벽, 진로포부, 학업 효능감, 학업 우수 청소년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협동연구과제(과제번호 B00152)로 지원된 연구 과제임.
[†] 교신저자 : 유성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45)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 02-3277-3911, E-mail : skyoo@ewha.ac.kr

진로선택은 개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Super, 1957), 인생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이정미, 2000). 특히 진로에 대한 인식과 발달이 시작되는 청소년기의 진로선택은 어느 발달 단계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uzzo, 1993; 이현주, 1999).

진로 선택의 과정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상담과정에서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은경, 2000). 초기 진로 선택 연구들이 개인 변인들과 진로결정과 관계들을 주로 강조했다면(손은령, 2001), 이후 진로 선택 관련 연구들은 개인 변인 뿐 아니라 사회배경변인이 진로결정과 목표에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Lent, Brown, & Hackett, 1994).

특히 최근의 진로이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인지 이론은 진로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그것에 영향을 주는 개인, 환경 요인들에 초점을 둔다(Lent, 2005). 사회인지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진로결정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성별과 같은 개인변인과 사회적 지지나 진로장벽과 같은 사회맥락변인의 중요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맥락 변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양난미, 2005), 맥락변인의 대표적인 예가 진로장벽이다. Gottfredson (1981)의 타협 제한 이론은 개인이 직업 포부를 실현하는데 장애를 만나게 됨으로써 포부를 제한하게 된다고 제안하였고, Brown, Eisenberg와 Sawilowsky(1997) 역시 직업과 관련된 장애를 지각함에 따라 진로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여러 연구자들은 진로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진로장벽에 대

한 지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O'Brien & Fassinger, 1993; Luzzo & Jenkins, 1996). 그러므로 진로 결정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이 무엇이고,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과 그것이 진로 목표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지각된 진로 장벽과 진로 포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두 변인의 관계가 단순한 직접적 관계가 아니라 여러 다른 변인들이 이들 관계에 관련될 가능성에 대해 제언하고(Swanson & Tokar, 1991a; 손은령, 2000), 진로장벽 지각과 진로 포부 결정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Bandura(1999, 2000)와 Lent 등(2003)은 효능감 변인을 강조하면서, 사회적인 지지나 사회 장벽과 같은 맥락변인들이 진로선택에 영향을 줄 때,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그 관계를 매개함을 주장하였다. Bandura(1999)는 맥락 변인들이 개인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Lent 등(2003)의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즉, 한 개인이 진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이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지각된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능력에 대한 평가가 최종적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 우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바에 따라 진로 장벽과 포부의 관계에서 효능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동시에 진로 장벽에 대한 지각이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제언(김진숙, 이종희, 2003)을 토대로 여성과 남성에게 있어서 효능감을 매개하는 진로 장벽의 영향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여성의 진로발달은 남성과는 다르게 이루어지며, 여성은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애착, 성역할, 진로장벽들의 영향력이 남성보다 클 수 있음을 제언하고 있는 많은 성차 연구들(O'Brien, 2000; 손은령, 2001)은 진로관련 변인 탐색에서 성 변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같은 개인의 진로결정에도 그것에 미치는 맥락 변인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면 진로 상담과 개입에 있어서도 성에 따른 차별적인 탐색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학업 적으로 우수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평균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들뿐만 아니라 능력이 우수한 남성과 여성 역시 진로 변인에 성차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Kerr, 1983; Kerr & Colangelo, 1988; Wilson, 1982). Betz와 Fitzgerald(1987)의 연구와 Kerr의 연구들(1983, 1987)은 우수한 여학생들이 나이가 들에 따라 가정과 직업의 책임 같은 내적 갈등을 가질 수 있고, 남학생들 보다 더 낮은 진로 포부를 가지고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이렇듯 우수한 능력을 가진 대상들에게 있어서 포부와 장벽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특별한 중요성을 내포한다. 왜냐하면 우수한 여성들이 높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성역할 갈등이나 장벽을 지각함에 따라 효능감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그들의 우수한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낮은 포부로 꿈을 제한하고 타협하게 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아실현 뿐 아니라 우수 여성 인

력 개발 및 활용이라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지양해야 할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자들이 우수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발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아들의 특징을 탐색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Achter & Lubinski, 2005), 우수아들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비하며, 특히 우수아들이 진로 발달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변인들에 대해서 연구된 것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우수아들은 일반아들과는 구별되는 진로발달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우수아들은 다양한 가능성(Achter, Benbow, & Lubinski, 1997), 대안의 포기(Perrone, Male, & Karshner, 1979) 및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성취에 대한 압력(Leung, Conoley, & Scheel, 1994)등의 심리적인 장벽이 진로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수아들이 가지는 독특한 진로 관련 변인을 제대로 밝힐 때 우수아들에 대한 “차별적인 진단과 차별적인 처치(김계현, 김봉환, 1997)”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학업 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학업 우수 남학생과 학업 우수 여학생 각각 집단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가?”와 같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 30개의 중학교, 10개의 일반 고등학교 및 5개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879명의 학생이다. 학업 우수아의 선발기준은 중학교의 경우 교

육청 산하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거나 전교 석차 10등 이내의 학생이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 학생이거나 전교 석차 10등 이내의 학생이었다. 표집인원은 학교급별로 중학생 440명(50.1%), 고등학생 439(49.9%)명 이었고, 성별로는 남학생 442명(50.3%), 여학생 437명(49.7%) 이었다. 각 학교급별 성별 인원수는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 213명(48.4%), 여학생 227명 (51.6%) 이었고,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 229명(52.2%), 여학생 210명(47.8%)이었다.

연구 도구

청소년용 진로장벽 척도(Career Barrier Scales for Adolescents)

진로선택이나 진로 결정 및 진로준비에 있어서 진로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황매향, 이은설, 유성경, 2005)와 청소년용 남성 진로 장벽 척도(황매향, 이아라, 박은혜, 2005)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용 여성 진로 장벽 척도와 청소년용 남성 진로 장벽 척도의 하위요인은 7개로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자기 이해의 부족, 자신감 부족,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 및 직업 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두 척도는 총 42문항 중에서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요인의 8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6요인의 문항은 동일하며,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경우 내적 신뢰도가 .66 - .85이었고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는 .62 - .83 으로 나

타났다.

학업적 효능감 척도(Academic Self-Efficacy Test: ASET)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되는,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해 보이는 기대나 신념(Bandura, 1977)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2001)이 제작한 학업적 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적 효능감 척도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수준선택의 3요인이며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아영(2001)의 연구에서 검사의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77 - .90으로 보고되었고 2주~ 3주 간격 재검사 신뢰도는 .70 - .83이었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 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80 - .88로 나타났다.

진로포부 질문지

청소년의 진로포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정미, 김지현, 황매향(2002, 2004)이 초, 중, 고등학생의 직업희망 및 인식에 관한 연구를 위해 사용했던 직업 리스트를 이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포부 질문지는 직업에 대한 흥미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된 직업 리스트의 71문항을 기초로 하여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직업들을 첨가한 총 79개의 직업목록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직업 리스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3개씩 선택하거나 직접 적도록 하였다. 직업 목록은 다시 노동부 직업지도의 학력순위와 임금 순위를 합산하여 지위 값으로 변환하여 역 채점 하였다. 진로포부는 3개 직업들의 지위 값 평균을 나타내며, 지위 평균값이 높을수록 진로포부가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가장 원하는 직업을 교수, 의사, 그리고 과학자라고 기록했다면 각각의 직업 지위값은 6위, 2위, 13위이므로 이들의 직업포부수준 값은 전체 직업 307을 기준으로 지위값 점수를 역채점한 301점, 305점, 294점이 된다. 그리고, 이 학생의 평균 직업포부 수준은 300점이 된다.

연구절차

학업 우수 청소년들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1학과와 2학기에 나누어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고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실시 안내문과 함께 각 학교의 담당 교사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선생님의 지시 하에 집단으로 실시되었다. 일반 중학교와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전교 석차 10등 이내의 학생들에게 설문지 실시되었고, 영재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학생들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 전부가 설문지의 대상이 되었다. 특수목적 고등학생들은 반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지 실시되었다. 또한 검사 시행 도중 학생들이 문항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검사 실시자는 국어사전적인 설명만 하도록 안내하였다.

자료분석

진로포부에 대한 진로장벽, 학업효능감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학업 효능감 매개모형을 각각 독립적으로 검증하였고, 두 집단의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 회귀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대신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χ^2 검증의 영가설의 내용(모형은 자료를 완벽히 설명한다)이 엄격해서 모형이 너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와 χ^2 값이 표본크기의 영향에 아주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적합도 지수중에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는데, 이 지수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수들이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 뿐만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TLI와 CFI의 경우 .95 값 이상일 때, RMSEA의 경우는 .06 값 이하일 때를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자료에 결측치(missing data)가 있었으므로 AMOS의 완전정보 최대 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IML)을 적용하였다. FIML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했거나(missing completely at random: MCAR),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missing at random: MAR)에 listwise 또는 pairwise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 보다 정확하게 미지수 추정을 한다(Arbuckle, 1996).

분석에 앞서, 자료가 정규분포의 가정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정규분포 가정이 심하게 위배된 경우, 최대 우도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에서도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보기 위해 첨도(kurtosis)와 왜도(skewness)를 살펴보았다.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시한 정규분포의 기준(skew>2; kurtosis>7)의 경우는 심한 비정규분포에 의하면, 분석에 사용된 변

수는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

학업 우수 남학생들의 학업 효능감 매개모형

학업 우수 남학생들을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 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두 단계를 따랐다. 먼저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그림 1의 매개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여기서 매개효과가 유의하면 다음 단계에서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경쟁 모형으로 하여 모형간 비교를 통해 매개가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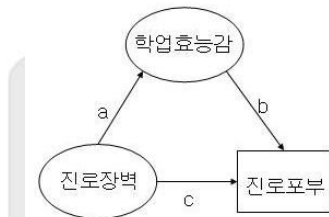


그림 1. 학업 우수 남학생의 학업효능감 매개모형

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 볼 수 있게 된다.

학업 우수 남학생들에게 있어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를 학업 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의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매개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한 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학업 우수 남학생의 경우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 효능감이 매개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RMSEA와 TLI, CFI 지수를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좋은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모형에서 추정된 계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학업효능감을 통한 매개효과(또는 간접효과)는 a 효과와 b 효과를 곱한 ab로 정의된다. 학업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b에 대한 Z검증을 실시하였다. Z는

$$Z = \frac{ab}{SE_{ab}} \frac{ab}{\sqrt{(SE_a^2)(SE_b^2) + b^2 SE_a^2 + a^2 SE_b^2}}$$

표 1. 학업 우수 남학생의 학업효능감 매개 모형 적합도

Model	df	χ^2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매개모형	15	46.100	.905	.961	.069 (.047-.092)

표 2. 학업 우수 남학생의 학업효능감 매개모형 경로계수

성별	경로	경로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남	효능감 ← 진로장벽	-.785*	-.543	.146	-5.362
	진로포부 ← 효능감	1.881	.191	.963	1.953
	진로포부 ← 진로장벽	-.422	-.030	1.051	-.401

*p < .05

의 식을 통해서 구해지며 이 식에서 SE는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즉, SE_a 는 a의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Z 검증에서 ab에 대한 표준오차 공식으로 몇 가지가 있지만 위에서 제시된 공식은 Aroian(Aroian, 1944) 공식 또는 변형된 Sobel 공식(Baron & Kenny, 1986)이라고 한다. 표 4에 제시된 a, b 추정치를 이용해 구한 매개효과 ab는 1.477이고 $SE_{ab}=0.815$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Z=1.812$ 이므로 $\alpha=.05$ 수준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크지 않았으므로 매개효과 ab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a, b의 개별적인 검증에서도 경로 b는 유의 하지 않았다.

즉 학업 우수 남학생 집단에서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없었다. 학업 우수 남학생들은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업효능감은 낮아지지만, 효능감의 수준이 진로포부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고,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력이 없으므로, 진로장벽의 수준이 진로포부를 결정하는데 미치는 직접, 간접적인 영향이 모두 없었다.

학업 우수 여학생들의 학업 효능감 매개모형

다음으로 학업 우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우수 남학생들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 모형인 학업효능감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먼저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남자 집단에서와 같이 그림 1의 매개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학업 우수 여학생들에게 있어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를 학업 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의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학업 우수 여학생의 경우 역시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 효능감이 매개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RMSEA와 TLI, CFI 지수를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좋은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모형에서 추정된 계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학업 우수 여학생 집단의 학업효능감을 통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남학생 집단과 같은 방법으로 ab에 대한 Z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a, b 추정치를 이용해 구

표 3. 학업 우수 여학생의 학업 효능감 매개 모형 적합도

성별	df	χ^2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여	15	49.518	.920	.967	.073 (.051-.096)

표 4. 학업 우수 여학생의 학업효능감 매개모형 경로계수

성별	경로	경로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여	효능감 ← 진로장벽	-.704*	-.660	.123	-8.766
	진로포부 ← 효능감	1.682*	.192	.725	2.321
	진로포부 ← 진로장벽	-1.471	-.103	1.073	-1.37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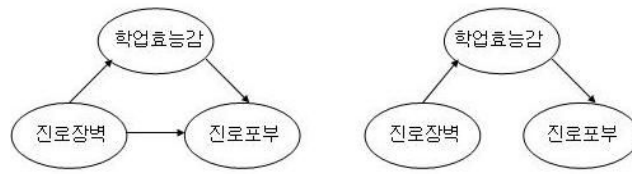


그림 2. 부분매개모형(좌)과 완전매개모형(우)

한 매개효과 ab 는 2.867이고 $SE_{ab} = 1.256$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Z = 2.283$ 이므로 $\alpha = .05$ 수준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 ab 또한 유의미함이 검증되었다. 또한 a , b 의 개별적인 검증에서도 두 경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다음 단계로 그 효과가 부분적인지 아니면 완전한지 평가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비교하였다. 두 모형은 내재된(nested) 모형이므로 χ^2 차이검증(χ^2 difference test)을 실시하였다(그림 2).

표 5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두 모형의 χ^2 차이 값은 1.542이며, 자유도의 차이 값은 1로 $\alpha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χ^2 차이 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면 부분 매개모형을, 유의미하지 않으면 완전 매개모형을 선택하므로(홍세희, 2001) 본 연구에서는 완전매개모형이 선택되었다. 즉 학업 우수 여학생 집단에서 학업효능감은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 우수 여학생들에

있어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 하지 않았으며, 진로 장벽이 효능감을 통해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는 간접 영향은 유의미하였다. 학업 우수 여학생들은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업효능감을 낮추는데 영향을 주고, 또한 낮은 학업효능감은 진로포부를 낮게 설정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Bandura(1999)와 Lent 등(2003)이 제안한 바를 기초로 지각된 진로 장벽이 진로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 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모델을 검증하였다. 또한 진로장벽이 진로 발달을 방해하는 영향력이 남성과 여성에서 다를 것이라는 Swanson과 Daniels(1994)의 제언을 기초로 학업효능감 매개모형이 학업 우수 남녀 학생들에게 적용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매개모형을 검증하고, 남녀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모형의 경로계수를 비교한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사항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 진로장벽과 학업 효능감의 영향력이 진로 포부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남녀 집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표 5.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 모형의 비교

Model	df	χ^2
완전매개모형	16	51.060
부분매개모형	15	49.518

적으로 학업 우수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동일하게 진로 장벽이 학업 효능감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진로 장벽이 진로 포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장벽이 학업 효능감을 통해 진로 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업 우수 남학생들의 경우 학업 효능감이 진로 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 장벽이 진로포부 수준에 미치는 직, 간접 효과가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학업 우수 여학생의 경우 진로 장벽이 진로 포부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없었지만, 학업 효능감을 통해 진로 포부를 설명하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 장벽을 지각 할수록 효능감이 낮아진다는 연구들(Luzzo et al., 1996 등)과는 일치하는 결과지만,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 포부가 낮아진다는 연구들(Green-Black, 1988 등)은 여학생 집단에만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진로 장벽의 영향력성에 따라 다르게 기능할 수 있다(Swanson, Diniels, & Tokar, 1996; 손은령, 2000)는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하며, 특히 진로장벽이 남성보다 여성의 진로포부를 방해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O'Leary(1974)의 주장이 학업 우수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각된 진로장벽이 학업 우수 남학생의 진로포부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학업 우수 여학생의 경우 학업 효능감의 수준을 통하여 진로포부를 방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연구의 결과는 우수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상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즉 같은 진로장벽을 지각하고

있는 우수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남학생의 경우 자신의 꿈을 결정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꿈을 결정하는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여학생들이 진로 장벽을 지각하는 경우 그것이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귀인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의 경우, 현실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될 때 이에 대한 귀인을 내적인 요인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남자들에 비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능력이 매우 우수한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시사되어 진다.

본 연구모형의 남녀 집단별 검증결과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결과는 우리나라 학업 우수 남학생들의 진로포부 수준에 학업 효능감이나 진로장벽의 지각 수준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학업 우수 남학생들의 경우 진로장벽을 높이 지각하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진로포부 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는 일반적인 진로포부 결정에 있어서 학업 효능감의 매개 효과 및 진로장벽의 직접 효과를 지지하는 선행연구들과는 매우 다른 연구 결과이다. 그렇다면 ‘학업 성취가 뛰어난 우리나라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장벽 및 자기 능력에 대한 지각이 진로 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쇄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과연 이들의 진로포부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예상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우수한 남녀에 대해 사회적으로 다른 기대를 하는 우

리나라의 유교 문화적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교권의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우수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가족, 사회로부터 높은 지위의 진로를 선택하리라는 기대를 보다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인 기대가 진로장벽이나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각 보다 진로 포부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예상은 추후 연구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우수한 청소년들의 진로 포부에 관한 본 연구 결과가 실제 상담 과정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 장벽이 진로 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업 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기초로 할 때,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할 때, 비록 현실적인 진로 장벽이 있을 지라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같은 우수한 능력을 가진 내담자라도 그의 성별에 따라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특히 높은 능력을 가지고 미래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는 학업 우수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들의 능력에 맞는 진로 포부를 설정하고 그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성에 따라 그들의 진로양상을 파악하고 개입의 방향성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학업 효능감이 높은 학업 우수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업 효능감이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며, 그 영향력이 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학업 우수 남학생과 여학생에 각각 차별적인 처치와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되는 학업 우수 청소년들의 진로 발달에 관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학업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일반아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델의 적합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수아 표본은 학업 성취에 있어서 그 범위가 좁으므로, 학업 효능감의 범위나 진로포부의 선택범위가 일반아 보다 훨씬 적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표본 자체의 특성이 다른 변인과의 관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설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일반아 표본과 함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세 변인에 있어서 관련성과 그에 대한 성차가 일반아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함께 비교하는 연구의 결과 또한 성 변인 뿐 아니라 우수성의 변인을 포함하여 내담자에 맞는 진로 상담에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수한 남학생들에 있어 학업 효능감과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으므로 우수 남학생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우수한 남학생들에게 독특하고 중점적으로 작용하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 연구들은 성별에 맞는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311-333.
- 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은영 (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숙, 이종희 (2003). 일반계 여고생이 지각한 진학 장벽. *상담학연구*, 4(4), 773-788.
- 손은령 (2000). 여성의 진로 선택과 진로 장애 지각의 관계. *학생생활 연구*, 18, 서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손은령 (2001). 진로 장벽 연구의 동향과 후속 연구과제. *학생생활연구*, 28, 81-97.
- 손은령 (2002). 대학생의 개인적 변인과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교육학회지*, 15(2), 1-14.
- 손은령, 김계현 (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21-139.
- 양난미 (2005). 한국 대학생의 사회인지 진로선택 모형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정이, 김지현, 황매향 (2002). 초등학생 직업포부 및 인식의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진로교육학회지*, 15(2), 1-17.
- 유정이, 김지현, 황매향 (2004). 중고등학생의 직업포부 변화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42(2), 315-333.
- 이은경 (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 이정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부산교육학회지*, 13(2), 101-123.
- 이현주 (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교육학 연구*, 38, 235-257.
- 임은경 (1998). 여성의 진로장애 요인에 대한 고찰. *한국진로학회지*, 3(1), 79-97.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01). 구조 방정식 모형의 기초와 응용. 워크샵 교재. Departments of Education and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 황매향, 김지현, 유정이 (2003). 중고등학생의 직업인식 발달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2), 3-12.
- 황매향, 이은설, 유성경 (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개발 및 구인 타당도 검증. *상담학 연구*, 6(4).
- 황매향, 이아라, 박은혜 (2005).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의 타당도 검증 및 잠재평균비교. *한국청소년 연구*, 16(2), 125-159.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and R. E. Schu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Aroian, L. A. (1944). The probability function of the product of two normally distributed variables. *Annals of Mathematical Statistics*, 18, 265-271.
- Achter, J. A., Benbow, C. P., & Luinski, D. (1997). Rethinking Multipotentiality Among The Intellectually Gifted: A critical review and recommendations. *Gifted Child Quarterly*,

- 41, 5-15.
- Achter, J. A., & Lubinski, D. (2005). Blending Promise with Passion: Best Practices for Counseling Intellectually Talented Youth.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600-624). NJ: Wiley.
- Bandura, A. (1999).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personality. In L. Pervin & O.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pp.154-196). NY: Guilford.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2001). Self- Efficacy Beliefs as Shapers of Children's Aspirations and Career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 187-20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tz, N. E. (1994). Basic issues and concepts in career counseling for women.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Career Counseling For Women* (pp. 1-41). Hillsdale, NJ: Erlbaum.
- Betz, N. E., & Hackett, G. (1987). Concepts of agency in educational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299-308.
- Betz, N. E., & Fitzgerald, L. F. (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Orlando, FL: Academic Press.
- Brown, M. T., Eisenberg, A. L., & Sawilowsky, S. S. (1997). Traditionality and the discriminating effect of expectations of occupational success and occupational values for women within math-oriented field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418-431.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NJ: Erlbaum.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Fitzgerald, L. F., Fassinger, R. E., & Betz, N. E. (1995). Theoretical advances in the study of women's career development.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J: Erlbaum.
- Flores, L. Y., & O'brien, K. M. (2002). The Career Development of Mexican American Adolescent Women: A Tes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14-27.
- Gottfredson, G. D.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Hackett, G., Betz, N. E., Casas, J. M., & Rocha-Singh, I. A. (1992). Gender, Ethnicity, and Social Cognitive Factors Predicting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tudents in Engineer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527-538.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 636-645.
- Hu, L-Z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Judd, C. M. & Kenny, D. A. (1981). Process Analysis: Estimating mediation in treatment evaluations. *Evaluation Review*, 5(5), 602-619.
- Kerr, B. A. (1983). Raising the career aspirations of gifted girl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2, 37-42.
- Kerr, B. A., & Colangelo, N. (1988). The college plans of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7, 42-48.
- Kerr, B. A., & Fisher, T. (1997). Career assessment with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239-251.
- Lent, R. W. (2005). A social cognitive view of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101-127). NJ: Wiley.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6-49.
- Lent, R. W., Brown, S. D., Schmidt, J. S., Brenner, B., Lyons, H., & Treistman, D. (2003). Relation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hoice Behavior in Engineering Majors: Test of Alternative Social Cognitive Mode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458-465.
- Leung, S. A., Conoley, C. W., & Scheel, M. (1994). The Career and Educational Aspirations of Gifted High School Students: A Ret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2, 298-303.
- Luzzo, D. A. (1993). Value of career-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predicting career-decision-making attitudes and skil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194-199.
- Luzzo, D. A., & Hutchesin, K. G. (1996). Causal Attributions and Sex Differences Associated with Perceptions of Occupational Barrie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5, 124-132.
- Luzzo, D. A., & Jenkins, S. A. (1996). Perceived occupational barriers among Mexican-American college students. *TCA-Journal*, 24, 1-8.
- McWhirter, E. H. (1997). Perceived Barriers to Education and Career: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124-140.
- O'brien, K. M., & Fassinger, R. E. (1993). A Causa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56-469.

- O'leary, V. E. (1974). Some attitudinal barriers to occupational aspiration in women. *Psychological Bulletin*, 81, 809-826.
- Perrone, P. A., Male, R. A., & Karshner, W. W. (1979). Career development needs of talented students: A perspective for counselors. *The School Counselor*, 27, 16-23.
- Swanson, J. L., & Diniels, K. K. (1994). *The relation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raw data,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Swanson, J. L., Diniels, K. K., & Tokar, D. M. (1996).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 Swanson, J. L., Tokar, D. M. (1991a).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 92-106.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56-75. Newbury Park, CA: Sage.
- Wilson, S. (1982). A new decade: The gifted and career choice.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1, 53-39.

원고접수일 : 2006. 9. 5
수정원고접수일 : 2006. 11. 6
게재결정일 : 2006. 11. 11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of Career-Barriers and Career-Aspirations
among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Sung-Kyung Yoo

Ewha Womans University

Sehee Hong

Yonsei University

Ahra Lee

Ewha Womans University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the academic self-efficac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barriers and career-aspirations among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We examined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mediating model we proposed. Research participants were 890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were recognized for the high academic achievement. We found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proposed mediating model. Specifically, in the academically talented femal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was confirmed.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from career-barriers to academic aspiration, and also a significant effect from academic aspiration to career-aspiration. But, in academically talented male students, there was neither direct nor indirect effect of career-barriers to academic aspiration.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nd for career counseling for the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were made.

Key words :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Career-Barriers, Career-Aspiration